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교사 출제진 50%로 늘린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3.11% 영어 영역 문항 19개 교체 ‘과다’ 검토 의견 반영 미흡도 원인 지목 ‘영역별 문항 점검위원회’ 통합 신설 2028 모평서 AI 지문도 시범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출제진에서 교사 비중이 기존 33%에서 5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학업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난이도 점검 절차도 전담 기구 중심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인 3.11%까지 떨어지며 난이도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출제 실패 원인은 문항 과다 교체와 전문성 검증 부족으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분석했다. 교육부가 수능 출제·검토위원회 설립부터 출제·검토까지 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영어 영역은 출제 과정에서 19 문항이 교체돼 국어 1문항, 수학 4문항

보다 교체 규모가 월등히 컸고, 이로 인해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절차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검토위원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우선 출제위원 구성 방식을 손본다. 현재 수능 전체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은 45%지만 영어 영역은 33%에 그쳐, 수험생의 실제 학업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절대평가 특성을 고려해 영어 영역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기존 33%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만 제2외국어 영역은 인력풀 여건 등을 감안해 현행 비중을 유지한다.

출제·검토위원 선발 절차도 보완한다. 무작위 추출 원칙은 유지하되, 추출된 인원을 대상으로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이력, 교과서·EBS 교재 집필 경력 등을 면밀히 확인해 전문성을 심층 검증하기로 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 인력풀을 통합하는 등 양질의 인력은행 확대도 추진한다.

난이도 관리 체계는 전면 개편된다. 교육부는 ‘영역별 문항 점검위원회’를

통합 신설해 오류 점검뿐 아니라 난이도를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기존 교육과정 외 출제 여부를 확인하던 ‘수능 출제점검위원회’에도 난이도 점검 기능을 추가한다. 현장 교사의 의견이 출제 과정에 더 폭넓게 반영되는 구조다.

중·장기적으로는 출제 기반 인프라도 강화한다. 현재 민간 숙박시설에서 이뤄지는 출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을 2028학년도 모의평가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AI를 난이도 예측과 유사 문항 검토에도 활용해 출제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안정적인 수능 출제는 신뢰받는 대입 환경 조성의 핵심”이라며 “공교육 내에서 노력한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수능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이천쌀 ‘첫 모내기’… 한 해 농사 출발

조기 육묘·재배기술 적용

이천시는 지난 10일 호법면 안평리 일원에서 ‘이천쌀 첫 모내기 행사’를 개최하고,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이천쌀의 힘찬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이천쌀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천시 관계자와 농업인 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첫 모내기가 이루어진 벼 품종은 극조생종으로 저온에 강하고 생육기간이 짧은 진부올벼로, 조기 육묘 및 재배 기술을 통해 일반 지역보다 이른 시기에 모내기를 실시했다. 이는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과 선도 농업기술 보급의 일환이다.

이천쌀은 비옥한 토양과 깨끗한 물, 큰 일교차 등 최적의 재배 환경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2월 이천쌀 전국 첫 모내기 실시. /이천시

이번 첫 모내기 행사는 이천쌀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첫 모내기 행사는 단순한 영농 행사를 넘어, 이천시 농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영농 지원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이천쌀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천(경기)=김대의 기자 dykim@

서울 진로변경 전학, 학기말로 바뀐다

2026년부터 8월·12월로 변경 일반고 → 특성화고 자격 통일 수시전형 실시 학교만 신청 가능

서울시교육청이 2026학년도부터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진로변경 전학 신청 시기를 기존 학기 초에서 학기 말로 변경하고, 학교별로 달랐던 신청 자격을 결석 3일 이하 등으로 통일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진로변경 전학 시기의

조정이다. 그동안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전학은 1학년 2학기 초(8~9월)와 2학년 1학기 초(3월)에 운영돼 학기 도중 학교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6학년도 1학년부터는 신청 시기를 1학기 말 8월과 2학기 말 12월로 변경해, 학생들이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새로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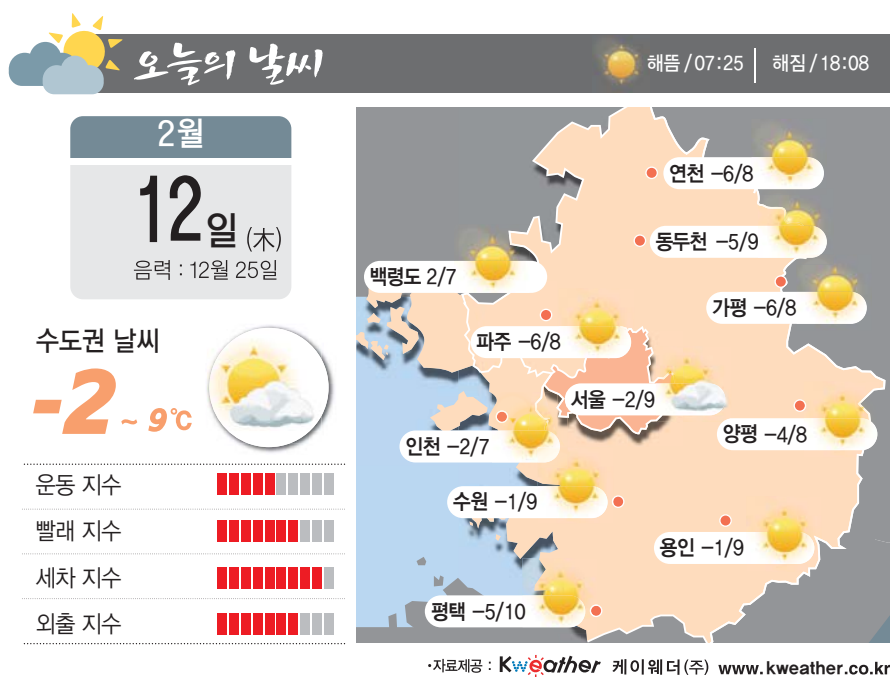
신청 자격 기준도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특성화고별로 선발 규정이 달라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진로변경을 신청할 때는 △미인정 결석 3일 이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선도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 징계처분이 없는 학생으로 통일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운영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진로변경 수시전형은 수시전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에 한해 시행하도록 명확히 했다. 수시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시기를 학기 말로 옮기면 학생들이 새 학기부터 안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적응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고려한 진로 선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 전문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정보 전편입학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 주거상담 5년 새 3배… 작년 24만건

주거안심종합센터 상담 연평균 19만건

서울시가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는 상담과 지원을 크게 늘려, 지난해에만 24만여 건의 주거 상담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상담 및 지원 분석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평균 상담 건수가 연 19만건으로, 2018~2020년 연평균 5만 6000건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을 받은 시민도 약 2만 2000명에서 5만 1000명으로 늘었다.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는

2013년 설치된 ‘주거복지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2022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통합 대행하는 방식으로 자치구별 1곳씩 운영되고 있다.

자치구별 상담소 운영 외에도 주거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를 지난해 총 88회 운영해 410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비닐하우스·족방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에게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지원’은 2020년 466건에서 2022년 3001건, 2025년 541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거상담소의 핵심 기능인 주거복지

상담은 시민의 주거 상황과 재정 여건을 진단해 공공임대주택, 금융지원 등 필요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민 5만 9000여 명에게 24만 4000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상담과 함께 실직·질병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비 △연료비 △간편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 지원 규모는 2018~2020년 연평균 2112건에서 2021~2025년 8377건으로 늘었고, 예산도 6억 2000만원에서 22억 5000만원으로 3.5배 확대됐다. 2025년 한 해에는 서울시 지원금과 후원금 등 22억 9000만원을 확보해 7949명을 지원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미국, 가자지구 재건 초기 ‘하마스 무장’ 일부 허용 계획 /사진 뉴시스
▲이스라엘, 역대 최초로 아랍계 국민 2명 시민권 박탈·국외 추방

▲러시아, 외교관의 날 “북·러 관계 질적 변화… 새 수준으로 격상”
▲유럽의회, EU-美 무역협정 수정안 합의… 트럼프 위협 안전장치 마련

▲일본, 나토 ‘우크라 지원 이니셔티브’ 참여 방침… 비살상 장비 한정
▲홍콩 언론의 지미 라이 판결 침묵 혹은 환영… ‘언론자유 종언’